

## 쓰레기 몸살 앓는 광주...하루 1130톤 쏟아낸다

인구 많은 북구 하루 362톤 최고...오염 저감대책 미흡 지적  
광주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98%로 전국 최고

광주시 5개 자치구중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43만명)로, 하루 362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로 쓰레기 배출이 많은 광산구는 약 41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70톤 가량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 밖에도 서구는 1일 평균 268톤, 남구는 122톤, 동구는 108톤으로 조사됐다.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과 사업폐기물로 나누어 분류하고 관리한다. 현재 광주시의 폐기물들은 지자체가 선정한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운반해 재활용되거나 광역 위생매립장으로 보내 처리한다.

음식물쓰레기는 광주광역시 공공 자원회수시설로 보내져 사료나 퇴비등으로 사용되고 관내 에너지원으로 생산되기도 한다.

사업폐기물의 대부분은 건설폐기물로 대형공사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재생처리 등을 거쳐 재생골재 등으로 재활용되기도 하고,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된다.

광주광역시는 동쪽에 있는 무등산과 이곳이 발원지인 광주천이 도심에 관통하는 환경친화도시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현재 각종 환경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광주천이 폭우로 범람하는 것은 물론 생태복원과 오염원 저감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쓰레기 매립 층이 발견됐지만 이에 대한 정밀 환경영향 조사마저 미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전반적 환경점수는 높은 편이다. 지난 7월 발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광주시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환경부문에서 전국 최고성적을 거뒀다. 특히 광주시 5개 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탄소포인트 가입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광주시 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광주시의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비율은 100%에 육박하는 97.8%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30.5%와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다. 실제로 북구(119.1%)가 가장 높고 이어 서구(113.5%), 남구(110.6%), 광산구(82.4%), 동구(68.4%) 순이다. 단 이 수치는 개별 가구뿐만 아니라 상가, 공공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는 점에서 환경부의 탄소포인트 가입 비율과는 차이가 있다.

ESG행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광주시가 ESG 평가에서 배점이 가장 컸던 환경부 주관의 전 국민 온실가스감축실천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서울시 제외)'에 참여한 가입세대비율은 전국 평균 30.5%에 머무르는 낮은 수준이지만 광주시는 97.8%의 높은 참여비율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박규태 학생기자



산더미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광주 북구 선별장 모습. 광주에선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가 하루 362톤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 ESG경영·저탄소 식생활 등 탄소중립 실현 박차

2045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시 노력 보니

탄소포인트제·빅스포 개최  
시민참여 모델 널리 알리기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화두 되고 있는 탄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대전환 선언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ESG경영 협약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 빅스포 개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업무협약을 진행해 왔다.

'ESG경영협약'은 무등산국립공원과 광주도시공사가 탄소중립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상호 간의 지식, 정보, 인프라를 교류하고 친환경 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의 공동 발굴 추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탄소포인트제'는 개인, 상업, 단지에서 신청하여 탄소 이용을 줄이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 1개로 교환할 수 있다.

'탄소중립 빅스포'는 탄소중립을 주제로한 신기술전시회, 국제컨퍼런스, 수출상담회, 국제발명특허대전, 일자리박람회, 강연, 체험부스 등을 진행했다.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업무협약'은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캠페인이다.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캠페인'은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촉진과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캠페인'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대전환 선언 이후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으며 이용섭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인 뜨거운 화두로, 광주시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담대한 도전에 나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농식품산업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일에 더욱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 말했다.

임윤희 무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선도적 역할에 있어 무등산국립공원과 광주도시공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순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실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대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환 마을 사례는 하나의 답을 주는 것 같다"며 "광주의 탄소중립 시민참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학생기자

## 광주의 실험적 도전 '에너지 전환마을'

동구 지원마을·서구 풍암마을  
남구 양림마을·북구 일곡마을  
광산구 첨단마을 등 5곳 선정

광주시는 지난해 7월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후 '광주형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사업시행을 위한 공모 했다.

동구 지원마을, 서구 풍암마을, 남구 양림마을, 북구 일곡마을, 광산구 첨단마을 등 5곳이 선정되어 각 마을에 특색에 맞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

인 사용을 실현하는 마을이다. 그 중 광산구 첨단마을은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연 곳이다. 첨단마을은 현재 '에너지 전환 카페' 견학,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캠페인, 첨단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여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첨단전환마을 네트워크 김미숙 건설파트는 "아직은 첫 단계를 힘들고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씩 적응하며 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첨단마을은 △추가 건설된 '에너지 전환 거점' 세 곳의 활성화 △태양광 보급사업 △녹색교통 △에너지 전환과 전환마을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동현 학생기자

극한  
청결

환자와 의료인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국내최첨단설비의 의료세탁물 처리기업  
백양실업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 Tel. 061)392 7900  
**(주)백양실업**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